

“합격 압박감에...” 범죄자 전략한 지역인재

전남출신 공시생, 인사혁신처 침입 공무원 합격자 조작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 이용...문제지 빼들리기 시도도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출신인 이 남성은 제주의 한 대학에 진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6일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출신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할 혐의(현주건조물침입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로 송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송씨는 경찰에서 “2~3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많이 지쳤다. 필기시험 결과 합격선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스트레스가 심했고 절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이후 제주의 한 대학에 진학한 이후 우수한 학과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은 상위 10% 이내의 학과성과 영어·한국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PSAT(공직 적격성 테스트)를 거친 뒤 대

학별 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인문대생으로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송씨는 ‘지역인재’로 추천받았지만 합격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해당 대학 교수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다. 유감이다”고 전했다.

송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5분께 청사 16층에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담당자의 컴퓨터에서 지난달 5일 치러진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과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또 지난달 24일에 도 침입을 시도했으나 성적 조작에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필기시험 전 청사 1층에 있는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으며, 이후 필기시험 일 전에도 사무실에 3차례 침입했지만 문제지를 빼들리는 데는 실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송씨는 3단계에 걸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검거 당시 송씨의 기숙사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여러 종류의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경찰은 송씨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손쉽게 접속한 점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장위국교육감 세월호 특별수업

“세월호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이 6일 광주여고를 찾아 2학년 학생들과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질문 속에 방향이 있고 답이 있다’는 교육감의 평소 수업 방식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사고 당시 왜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았을까” 등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장애인 77% “저상버스 이용 불편”

복지재단 설문...운행횟수 적고 환승 오래 걸려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장애인 31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실태 및 저상버스 이용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297명)의 77.4%가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약간 느낀다’ 27.6%(82명),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5.3%(75명),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4.6%(7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장애인은 22.6%(67명)에 불과했다.

저상버스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전체 24.9%(196명)가 ‘저상버스 운행횟수가 적음’이라고 답했고, 이어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 13.5%(106명), ‘교통 약자용 좌석이 부족해서’ 11.1%(87명), ‘정류장이 멀어서’ 9.9%(78명), ‘버스가 그냥 지나쳐서’ 8.5%(67명) 순이었다.

특히 전체 유효응답자 301명 중 60%(182명)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무정차 통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주일에 한차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7%에 달했다.

저상버스 시스템 개선점으로는 절반이

넘는 51%(155명)가 ‘교통 약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버스기사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어 19%(59명)가 ‘운행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지역 시내버스 844대 중 저상버스는 154대(18.2%)다. 광주복지재단 관계자는 “휠체어 장애인 탑승 및 하차를 버스기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저상버스운행정보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7일 오후 남구 광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하라”

광주원장단 교육청 항의 방문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은 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학부모를 불모로 잡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원장들은 ‘어린이집·차별철폐 교육평등 누리과정비 즉각 지원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또 “장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제42회 보성다향대축제

2016. 5. 4.(수) ~ 5. 8.(일) / 5일간
한국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주최 주관 보성차생산지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동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 해질 18:59 | 달돋이 06:00 | 달질 18:47

파도 매우 높아요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고, 오후에는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3/21	보성	비온뒤	12/19
목포	비온뒤	13/18	순천	비온뒤	12/20
여수	비온뒤	13/17	영광	비온뒤	12/18
나주	비온뒤	12/20	진도	비온뒤	13/18
완도	비온뒤	14/18	전주	비온뒤	12/19
구례	비온뒤	12/20	군산	비온뒤	12/17
강진	비온뒤	13/19	남원	비온뒤	12/20
해남	비온뒤	13/19	홍산도	비온뒤	10/14
장성	비온뒤	12/1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해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남부	북~북동	2.0~3.0	북서~북	1.5~2.5
남해	남부	남서~서	1.5~3.0	서~북서	1.0~2.0
	서부	남서~서	3.0~4.0	서~북서	2.0~4.0
제주	서부	남서~서	3.0~4.0	서~북서	2.0~4.0
	남부	남서~서	3.0~4.0	서~북서	2.0~4.0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표	밀물	썰물
	01:48	07:11
	14:13	19:33
여수	09:06	02:41
	21:25	15:06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	☀	☀	☀	☀	☀	☀
9/22	8/22	9/22	10/23	10/19	11/21	10/19

“청정 공기값 1000원 더 받습니다”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입장료 인상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입장료에 ‘청정 공기값’ 1000원이 더 붙는다.

장흥군은 이일부터 2000원이던 우드랜드의 입장료를 3000원으로 올리고 편백소금집의 이용료를 2000원 내린 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장흥읍 역불산에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와 공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의 분포가 도시지역의 10배, 일반 수목지대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흥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측정량이 전국 평균보다 15%가량 낮아 전

국 최고의 청정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팀이 실시한 도시 근교지역과 편백숲 우드랜드의 공기 질 측정 결과 우드랜드가 폐기능과 동맥경화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우드랜드 입장료를 성인과 청소년(13~18세)은 1000원씩 올려 각각 3000원과 2000원으로, 어린이(6~12세)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해군 호위함 ‘광주함 부대’ 창설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FFG-817) ‘광주함 부대’가 창설됐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은 6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해군 차세대 호위함인 광주함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날 부대 창설식에는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호위함은 시·도 명칭을 함명으로 사용하는데 1번함은 인천함, 2번함 경기함, 3번함 전북함, 4번함 강원함, 5번함 충북함에 이어 6번함은 광주함이다.

광주함은 2300t급으로 전장 114m, 전폭 14m, 높이 25m, 최대속력 30km이며, 승조원은 120명 규모다.

엄격한 인수-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해군에 인도돼 제8전투훈련단에서 전력화 훈련과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뒤 실전에 배치된다. 주요 임무는 책임해역 감시·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 대한민국 해양 수호임무를 맡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